

언론이 AIDS 편견과 차별 부채질

질병은 치료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데도 사회적 이미지를 지닌 그 무엇으로 취급된다. 특히 치명적인 질병이나 전염병일수록 편견과 차별의 이미지로 환자들을 좌절시킨다. 그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본인은 바로 언론이다.



안중주
한겨레신문사 심의위원

최근 한국 신문들은 일제히 한 외국인이 쓴 책을 토크마냥 소개했다. 지은이는 유방암과 자궁암에 걸려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 수전 손택이다. 그는 <은유로서의 질병>이란 책을 통해 질병은 치료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무엇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손택의 아버지는 1939년 결핵으로 죽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손택에게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곳과 결핵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손택은 한참 뒤에 어머니가 그토록 쉬쉬하던 이유를 알았다. 당시 결핵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병이었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질병과 전염병일수록 편견과 차별은 극심

질병과 전염병의 역사에서 손택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한센병(나병) 환자가 그렇고 매독 환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치명적인 질병과 남에게 잘 옮기는 전염병에 걸렸거나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편견과 차별은 극심했다.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습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나 에이즈 감염인들이 새로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유

행 초기에는 에이즈 환자와 감염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벌어졌다. 그 차별은 주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옮겨 놓은 <필라델피아>이다. 이 영화는 에이즈에 걸린 변호사가 자신이 일하던 법률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해 관리를 다시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누가 이런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편견을 고발한 손택의 책을 호평하며 소개한 바로 그 언론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에이즈와 에이즈 감염인(환자)에 대한 편견을 심하게 가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가 에이즈를 혐오스런 병으로 여기고 49%는 환자나 감염인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의견을 보였다. 직장에서 내쫓아야 한다거나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한 사람도 각각 32%와 73%나 됐다. 에이즈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조사 통계이다.

언론이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격리, 관리감독 부추겨

왜 한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상당한 책임이 바로 언론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인이나 환자들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에이즈 퇴치운동을 벌이지 못하는지...
왜 유명인사나 대통령이 에이즈 퇴치운
동에 적극 나서지 않는지를 심층취재해
알릴 필요가 있다.

1980년대는 물론이고 1990년대에도 언론은 줄기차게 에이즈 감염인이 거리에서 활보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항상 알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해 대선 때에도 한 후보가 집권하면 에이즈 감염인/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에이즈 바이러스 유무 검사를 하자는 주장과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에게 전자표식을 부착시켜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 따위를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감염인들의 인권을 무시한 편견과 차별을 드러낸 것이어서 곧바로 사과를 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처럼 극단적인 편견과 차별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에이즈 감염인/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사고다. 만약 이런 이유로 이들을 직장에서 내쫓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사회에서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렵게 된다.

이들에게 사회는 온기가 느껴지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죽음을 재촉하는 차가운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범죄자로 변하고 만다.

그 결과 에이즈 퇴치는 공염불이 되고 오히려 빠르게 확산된다. 실제 이런 일은 편견이 심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다시 에이즈 감염인/환자에게 범죄자라는 인상을 덧씌워 차별과 편견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에이즈 문제를 다루는 우리나라 언론의 시각은 과거에 건주어 많이 나아지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채 겉도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왜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인이나 환자들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에이즈 퇴치운동을 벌이지 못하는지, 왜 유명인사나 대통령이 에이즈 퇴치운동에 적극 나서지 않는지를 심층취재해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미혼모, 극빈층 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심한 차별을 받는 이들이 바로 에이즈 감염인/환자일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에이즈 감염인/환자와 어깨동무를 한 모습 또는 함께 식사할 하는 모습이 담긴 에이즈예방 포스터가 등장하는 날이 되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